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세심하게 돌보는 손길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에 주목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열매’

2014
09+10

열매,

풍성한 가을 햇살과 농부의 땀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행복이라는
미래의 결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09+10

지방세

www.ertax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장학금신청

국가유공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상담

복지부정신고

헷갈리는 세금 문의 상담

기초생활지원

원산지표시

국내산

장애인등록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서류상담

고충민원

부패·공익침해 신고

행정심판

성범죄자 우편고지

수산물안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국민결愛 110 정부민원 110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09+10 vol.40

발행일 2014년 10월 8일(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정보

편집인 권근상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CONTENTS



● 테마기획 – 탐스럽게 무르익은 국민행복 열매

04 테마 스토리 _ 정부부처 콜센터 대표번호, '110'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08 테마 포커스 _ 온라인 상담부터 수화, 외국어까지 한 번에!

10 테마 인포 _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모저모

○ 희망전하기

12 국민권의 이야기 _ 광예민성 피부질환 환자 현역복무 규정 개선 의견표명

16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 공익신고 강화로 만든다

20 소통의 창 _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룬다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장치

○ 권익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_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듣다

28 글로벌 ACRC _ 청렴한 국가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잡다

30 국민권익 Q&A _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32 110 행복레시피 _ 어르신들의 작은 바람

○ 행복나누기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내 마음의 작은 쉼표를 찍다

38 감성충전소 _ 시간을 거슬러 올라 역사의 길에 발을 내딛다

40 스포츠 인사이드 _ 유례없는 혼전 속 가을야구의 향방

42 건강 다이어리 _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 스트레칭

44 청렴 오디세이 _ 낮은 데로 임하는 청빈한 목자

46 꼭 알아두세요! _ 학대,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48 뉴스&피플 _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외

50 행복우체통 _ 독자사연&퀴즈



너무 많은 정부부처 콜센터를 하나로!

궁금증은 늘 불시에 찾아들기 마련이다. 게다가 생소한 정부 관련 내용이라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콜센터가 존재한다.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부 민원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편리하고자 만든 콜센터 번호를 정작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것. 번호가 너무 많은 탓이다. 현재 41개 부처에서 96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신고·상담 전화번호는 무려 91개에 달한다. 지인의 전화번호조차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대에 수십 개의 정부부처 콜센터 번호를 모두 기억하는 이가 과연 존재할까 싶다. 설령 번호를 안다 해도 부처가 워낙 다양해 정작 어디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특별한 기준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다 보니 불편과 비효율에 대한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실례로, 110으로 대표번호를 통합하기 전 정부과천청사 입주 11개 콜센터의 경우 상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부처 콜센터 대표번호, ‘110’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정보 과잉의 시대. 더 단순한 것, 더 쉬운 것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할수록 단순화는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각각 운영되던 콜센터는 국민 편의성과 운영의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단일대표번호 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2014년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등 4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해 8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 8월 27일 열린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출범 기념식
- 현재 110콜센터에는 총 138명의 상담사가 하루 평균 8천 통에서 1만 통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 110콜센터에서는 통합강사팀을 꾸려 전문상담 심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TIP. 기관별 110번 단일화 내용

부처별	세부 내용
해양수산부	· '14.3.1부터 110번으로 상담 개시, 콜센터 통합 · 기존 대표번호(044-200-5555)는 병행운영 후 '14.9.이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 '14.7.1부터 110번으로 상담 개시, 콜센터 통합 · 기존 대표번호(1577-1020)는 '15.1. 이후 폐지
교육부	· '14.7.25.부터 기관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 상담개시 · 교육부콜센터 현행유지 · 기존 대표번호(6222-6060)는 '14.12월까지 병행운영 후 인입콜량 추이분석 후 폐지여부 협의

담 인력이 1명부터 138명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또한 단일 상담 서비스 품질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콜센터도 11개 부처 중 5개 부처에 달했다.

이에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내의 11개 정부부처 콜센터 대표번호 단일화를 결정했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110 콜센터에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권익위,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일화가 진행됐는데, 덕분에 정부 민원 문의전화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편의성 외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돋보인다. 그동안은 시스템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이 꾸준히 중복 투자되고, 부처마다 자체 콜센터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됨으로써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콜센터를 통합할 경우 과천청사 11개 입주 콜센터를 기준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약 98.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10 콜센터 활성화 위한 출범식

지난 8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권익위 이충호 권익개선 정책국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산업협회장, 해양수산부, 교

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콜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콜센터 4개 기관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및 110 단일 대표번호 시범운영을 기념하며, 콜센터 통합사업 유공자 및 상담사 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수도권 소재 11개 부처 정부콜센터의 장소적 통합은 사실 지난해에 이미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장소만 한 곳에 모인 것일 뿐, 인력과 번호는 별도로 운영되는 등 시스템 통합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변화다. 때문에 현재 4개 부처만 통합된 상태지만 단일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이번 출범식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권익위 이충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110 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한 궁금중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범정부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피력했다. 더불어 ‘앞으로 대상 부처를 확대해 단일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4개 기관 통합상담서비스를 시작한 110 콜센터는 위치, 부서, 전화번호 안내, 문의 빈도가 높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내용 등 일반적인 상담을 전담한다. 보다 전문적인 2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 콜센터나 부서로 바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4 콜센터 통합사업 유공자와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시상도 이뤄졌다

5 110콜센터 운영이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에는 인입 전화가 현재 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약 8천에서 1만 통. 138명의 상담사가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갖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현재 110 콜센터 자체에서 1차로 상담이 마무리 되는 비율은 약 85%로 높은 편이다. 이는 평소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 110 콜센터는 8명으로 구성된 통합강사팀을 꾸려 CS, 화법, 음성 관련 교육은 물론 전문상담 심화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10 콜센터 개설로 상담이력 등의 연계·공유체계 구축과 운영시스템의 호환, 서비스품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가파른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다. 해수부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자면, 상담 품질과 접근 편의성이 높아짐으로써 고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110 콜센터 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 가능한데,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접근 통로를 넓히기 위해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온라인 채팅 및 수화(m.110.go.kr)를 통해서도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길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를 병행 운영 중임에도 단일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해수부의 경우 지난 3월 착신률이 8.8%에 그쳤던데 반해 7월에는 33.6%로 급성장했다. 앞으로 정부콜센터 인입 전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시스템 통합과 110 단일 대표번호 운영이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에는 현재 대비 약 30% 늘어날 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 단일 대표번호로 상담전화가 폭주할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마쳤다. 부처 콜센터 간 상담 데이터베이스 공유, 콜 연계 시스템 등 협업체계 강화, 예약 콜 등록 후 사후 콜백 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운영 주체로서, 우선 시행된 4개 부처에 이어 나머지 7개 부처 또한 점진적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청사 입주 11개 콜센터 간 정부콜센터 통합 운영 실무추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재정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부부처 콜센터 대표번호 110.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될 때까지, 진정한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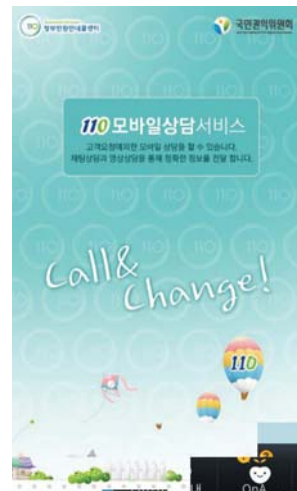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 서비스

온라인 상담부터 수화, 외국어까지 한 번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다양한 특별한 상담 서비스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채팅, SNS 등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 콜센터의 대표적인 4가지 특별 상담 서비스를 만나보자.

추석 등 명절연휴, 쉬지 않는 상담서비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기간에도 110 콜센터는 정상 운영됐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상담과 안내를 실시한 것. 추석명절에 문의가 많은 교통상황 안내, 불법주차 단속문의,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정보와 긴급 의료서비스,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과 안내가 이뤄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상담사가 다음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해주는 콜백서비스도 제공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문자, 채팅, SNS까지! 다양한 상담채널

110 콜센터의 편리한 점은 전화상담은 물론 문자와 채팅, SNS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전화번호와 같은 110으로 문자를 보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110 홈페이지(www.110.go.kr), 110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와 110콜센터 앱에서 채팅상담과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트위터(@110callcenter)와 페이스북(110call),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트위터 상담 서비스는 팔로워들이 질문을 하면 상담사가 답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는 요일별, 계절별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있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주요 민원과 이슈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한국말을 몰라도 편리하게, 외국어 통역 서비스

110 콜센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110 콜센터로 전화하면 국적을 확인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연결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통역을 통해 민원 내용이 파악되면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결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명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보면서 말해요,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

110 콜센터는 취약계층의 민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를 마련한 것.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배려다. 예를 들어 청각·언어장애인이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민센터 직원이 수화를 모르는 경우 필답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글씨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어렵다. 이럴 때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110 콜센터에서는 각 공공기관 컴퓨터에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해 수화상담사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수화를 보고 동시통역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전국 공공행정기관에 도입한 이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는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모저모



전화번호 하나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상담받을 수 있는 편리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각 정부기관별로 상담 전화번호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기관 콜센터 대표번호의 110 단일화 운영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자.

숫자로 보는
110



5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07년 개소 이래 5년 만에
천만 콜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11개



2013년 8월 수도권 소재
11개 부처의 정부콜센터가
과천청사로 통합,
이전함으로써 정부콜센터 통합의
발판이 마련됐다.

4개



꾸준한 통합 노력 끝에
201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등
4개 기관 콜센터 대표 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해 운영하게 됐다.

317개



민원이 접수되면 일반민원은 콜센터에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317개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해
원스톱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꾸준한 논의를 통해 2014년 4개 부처 통합,
2015년 3개 부처 통합을 거쳐
2017년 전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229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모두 21개국어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어 통역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총 22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13,1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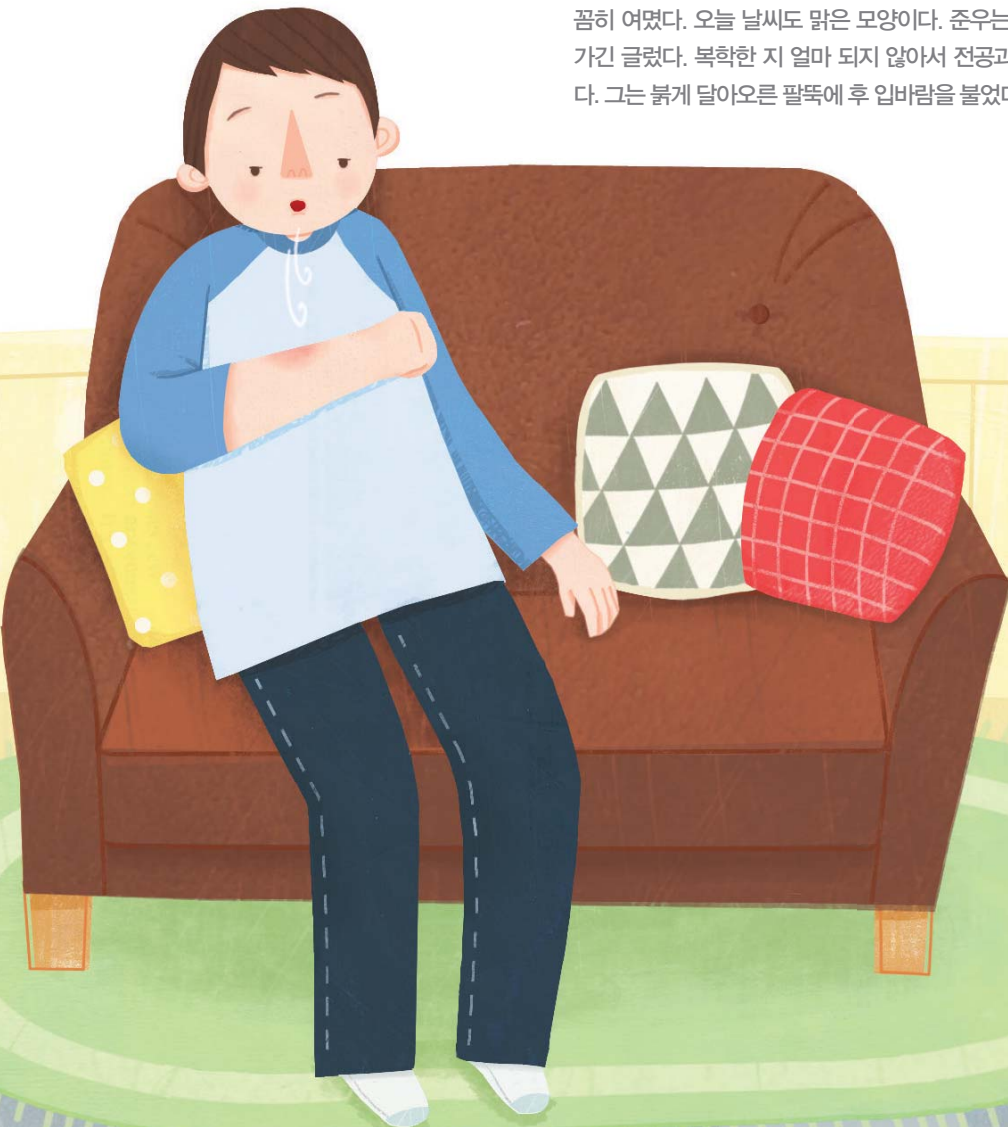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통역 상담서비스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말 현재 4,600여 개 기관과 연계해
1만 3,117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광예민성 피부질환 환자 현역복무 규정 개선 의견표명

광선검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준우는 퍼뜩 눈을 떴다. 빛줄기에 팔뚝이 두 동강나 있다. 한 줄기 빛이 지난 자리는 별절게 부어올랐다. 그는 후다닥 일어나 빛이 들어오는 곳을 찾았다. 커튼 틈 사이로 새들어온 아침 햇살이 광선검처럼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커튼 자락을 잡아당겨 꼼꼼히 여몄다. 오늘 날씨도 맑은 모양이다. 준우는 다시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오늘도 학교 가긴 글렀다.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공과목을 부지런히 따라잡아야 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팔뚝에 후 입바람을 불었다.



햇빛을 피해야 하는 광예민성 피부질환

준우는 자외선 A에 반응하는 광(光)예민성 피부질환 환자다. 빛이 닿으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고 10분쯤 지나면 피부가 땅긴다. 심하면 갈라지기도 한다. 그는 빛이 무섭다. 한낮에 밖에 나가려면 최대한 몸을 가려야 한다. 긴팔, 긴 바지는 물론이고 챙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 스카프까지 챙겨야 한다. 여름이면 강한 햇살 때문에 더욱 끔찍해야 한다. 준우는 한밤중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선다. 필요한 것도 사고 운동도 한다. 어제 새벽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다 들어와 잠들었다. 한밤중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거나 피곤한 얼굴들뿐이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그들은 얼마나 활기차까? 문득, 창문 밖이 몹시 궁금했다.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커튼을 활짝 젖혔다. 빛이 폭우처럼 그의 몸을 흠뻑 적셨다.

“뭘하는 거냐!”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그는 황급히 커튼을 쳤다.

준우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태양에 맞서 준우를 지켜냈다. 준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낮에 집밖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덕분에 영화라면 신물날 정도로 많이 봤다.

어느 날 어린 준우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난 드라큘라야? 햇빛이 닿으면 타버려?”

어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울먹이는 대신 영화속 주인공을 불러냈다.

“드라큘라가 아니고 루크야. 우리 준우는 광선검을 들고 다쓰베이더와 싸우는 루크.”

루크라면 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이었다. 스타워즈는 준우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다. 루크가 광선검을 들고 다쓰베이더와 맞서는 장면이 나오면 플라스틱 광선검을 들고 와 신나게 휘둘렀다. 광선검은 백화점을 뒤져 어머니가 사다준 것이었다. 스위치를 누르면 눈부신 푸른 빛이 쏟아졌다.

‘광선검은 밤에 더 잘 보이지? 루크가 광선검을 쓰려면 밤을 기다려야 해. 그때 엄마랑 밖으로 나가자. 응, 착하지?’

준우는 밤마다 동네를 쏘다니며 광선검을 휘둘렀다. 빛을 피해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휘두르는 게 좋았다. 깜깜한 골목길에 광선검보다 빛나는 것은 없었다.



불합리한 현역 판정, 어쩔 수 없는 입대

자라면서 준우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병에 관해 알게 됐다. 이 후론 광선검을 휘두르는 일 따위 하지 않았다. 그는 드라큘라는 아니었지만 루크도 아니었다. 그저 빛을 피해야 하는 환자였다. 빛을 피할 수 있다면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대가 문제였다. 군대는 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군의관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무슨 수가 나겠지 생각했다. 신체등급을 6등급이나 7등급을 받으면 입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광(光)에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군의관이 그가 제출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네. 그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신체검사 규정에는 없습니다.”

“희귀병입니다. 4살 때부터 다녔던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떼 왔습니다.”

“장병 신체검사 규정상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짧네요.”

그제야 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평생이 쏟아지는 연병장에 꿈쩍 없이 서 있게 될지도 몰랐다. 끔찍했다.

“광에민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주의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화상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치료한다고 낫는 병도 아닙니다.”

그동안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다. 면역억제제를 1주일 정도 복용하다 속이 좋지 않아 끊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약을 바꿔가며 먹어보기도 했다. 모두 소용없었다. 지금은 옥시크로린이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그는 현역2등급을 받았다.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무사히 청년으로 자란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는데... 하늘과 땅이 동시에 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이젠 어쩔 수 없었다. 태양에 맞서보는 수밖에.

그는 3일 만에 귀가 조치 됐다. 훈련소에서 2시간 정도 입소식을 했을 뿐인데 머리와 귀, 목 등 햇빛이 닿은 곳에 모조리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귀가는 임시 조치일 뿐 반드시 재입대해야 했다. 준우는 병무청에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병무청은 규정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보자고 했다.

“소용없어요. 어머니.”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호소할 힘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개정되지 않는 규칙, 결국 입영 40일만에 전역해

이번엔 어머니가 준우를 일으켜 세웠다.

“준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다행히 권익위는 준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체등급을 다시 판정하라고 지방병무청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병무청

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검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고, 규칙이 개정되면 준우도 신체검

사를 다시 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와 준우는 한시름 뉘었다. 병역면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방

부는 2년이 지나도록 검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 차례 확인 요청을 했다. 2012년도에

는 ‘2013년도에 개정할 예정이다’고 했고, 2013년에는 ‘2014

년 2월경에 개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최근에는 ‘2015년 1월경

개정하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와 준우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준우야, 어떻게든 조금만 더 버티보자.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잖니, 응?”

어머니가 말했지만 재입대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었다. 준우는 현역으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재입영했다. 군부대는 준우에게 골프우산을 쓰게 하고 팔토시와 목토시, 정글모를 착용시킨 후 신병훈련을 받게 했다. 하지만 화상을 피

할 수는 없었다. 결국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했

다. 지칠 대로 지친 준우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 패배한 군인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걱정스런 눈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커튼이 쳐진 방은 낮에도 어두웠다. 그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방 한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광선검이 희미하게 보였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는데 광선검

은 같은 자리에서 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우는 광선검을 집어 들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손잡이의 버튼을 눌렀다. 푸른 빛이 쏟아졌다. 준우는 검을 공중에 휘둘러봤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그는 훈련소에서 배운 총검술을 떠올리며 팔을 쭉 뻗어 힘차게 휘둘렀다. 광선검이 붕 소리를 내며 어둠을 갈랐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어

둠속에서라면 그는 빛을 휘둘러 수 있었다. 빛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없었다.



Case Information

선천성 광(光)에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 규정 중 적용받을 수 있는 입영 면제 규정이 없어 부득이 입대를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익위의 의견표명 후에도 국방부는 개정을 미루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 공익신고 강화로 만든다

9월 30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권익위는 2011년 9월 30일 본격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3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계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4. 9. 30(화) 15:00~17:00
장소: 페럼타워 3층 페럼홀

「공익신고자 보호법」 3주년, 부패와 부조리 예방에 기여하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공익침해 행위가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사회 위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추진되고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부패와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로는 적지 않다.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시행 첫해 1,153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2,876건, 올 들어 9월까지 5,37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처리된 공익신고 숫자만 해도 총 8,813건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액 수도 지난해에는 2억 2,770만 원이지만 올해에는 이미 3억 원을 돌파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부패 척결에 실효성이 크다는 의미다. 공익신고로 인해 숨겨져 있던 병폐가 드러나 해결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2년에는 한 혈액원에서 B형간염 검사장비 도입이 지연된 사실이 공익신고로 드러났다. 수혈로 인한 B형간염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검사장비가 필수인데, 장비 구입을 위해 국고를 지원받기도 장비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장비 도입을 미루고 있었던 것. 때문에 수많은 수혈환자가 B형간염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고 바로 사실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에 이첩했으며, 혈액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도입



1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학계, 일반국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2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2

은 물론 혈액검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철도교량하부 보강공사 부실시공, 식품회사의 특정거래처 부당지원, 건설회사 간 공사담합 등이 공익신고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년 동안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숨겨진 부패와 부조리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로 이뤄지는 공익신고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공공·민간 부문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사회 공동체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론회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우리사회는 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사고 등을 겪으며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사회를 바라보면 그다지 안전하지 못한 듯 합니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무시된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300번의 징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징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입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안전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나가야 하며, 사회 안전 시스템의 토대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기본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 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발제는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사회로 중앙대학교 박홍식 교수와 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변호사가 차례대로 발표했다. 박홍식 교수는 ‘공익신고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통한 안전서비스 공동생산 패러다임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공익



3 토론 직후 시민과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4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고자 보호법」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창준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신문고에 제보가 있었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공익신고자의 중요성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권익위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과를 볼 수 있는 공익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제도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고언 이어져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특별시 송병춘 감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입법조사관,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 서울신문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대한상공회의소 노재성 지속가능전략팀장,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등 총 6명의 토론자들이 배석했다. 토론자들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신문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차명신고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언론을 공익제보, 공익신고 창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문신고자, 일명 파파라치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영원 입법조사관은 ‘제도시행 만 3년이 됐지만, 아

직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성과평가체계 구축, 법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최근 법원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며 법과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노재성 지속가능전략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신고 제도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시의 공익신고 안심 시스템 운영 성과를 설명하며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최소한의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을 맡은 김병섭 교수는 ‘아쉬움은 많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다같이 노력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익신고 제도 발전을 위해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결과를 더 많이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권익위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수렴해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내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토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해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 바탕에는 부패와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 튼튼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이 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1 지난 9월 3일 서울역에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 2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선언문에 서명하는 박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
- 3 이날 출범식에는 3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식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우리 모두의 * 힘으로 이룬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은 우리사회가 이뤄야 할 시급한 과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부패 척결과 청렴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9월 3일 권익위를 비롯한 38개 공공부문, 시민단체 기관이 모여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발족했다.



민·관이 손잡고 청렴사회를 위해 나서다

“1963년 GDP 63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신뢰가 약화되고 부패가 확산된 것이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패가 묵인되고 방치되면서 ‘암’처럼 우리 사회 한 켠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패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투명한 사회, 투명한 국가는 연대가 시작될 때 조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KTX 서울역사에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2008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해산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다.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민·관이 손잡고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는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모두 3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공공부문 의장은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시민사회 공동의장은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채영수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지역부문은 황영식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또 운영위원장은 한국 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이, 실행위원장은 한국 투명성기구(TI) 안태원 상임이사가 선정되었고,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가 선정됐다.

반부패·청렴사업 및 연구·인력양성 등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

이날 출범식에서는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범선언문을 채택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사회 부문 공동의장인 채영수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등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부정부패 등 여전히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지 않으면 희망의 미래로,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부정부패와 악습을 떨쳐내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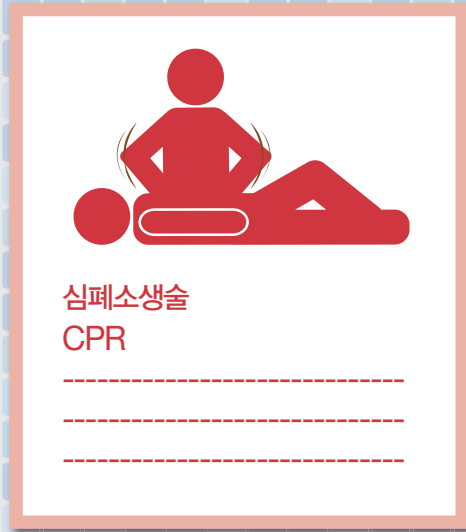
이어 참여단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서울역사 주변, KTX 승·하차장, 지하철 1·4호선 곳곳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팸플릿을 나눠주며 청렴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 “다 함께 더 맑게 -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전국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관 탐방 및 교류활동, 반부패 전문교육 인력 양성 활동, 각종 정보 교류를 위한 웹진형태의 뉴스레터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공동 연구활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 정책을 제언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출범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동참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중목욕탕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부착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장치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 희망과 행복을 키운 사례를 만나보자.



대중목욕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어르신

“정말 큰일 날뻔했더니까!”

목욕탕 주인인 L씨는 잘 아는 동네 손님들에게 한바탕 이야기보따리를 펼쳐 놓았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목욕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일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119가 올 때까지 빨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응급실로 실려간 어르신은 위기를 넘기고 치료를 받게 됐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아파, 거 머릿속이 껌껌해지는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여기저기서 본 건 있으니까 급하면 할 수 있으려니 했는데 말야.”

“그게 쉽게 생각이 나나, 보고 해도 제대로 할까말까인데. 어디 가니까 아예 목욕탕 벽에다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붙여 놔터만. 여기도 하나 해놓지 그래?”

“아하, 그거 괜찮구만!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미리 조심하는게 좋지.”

L씨는 무릎을 탁 쳤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막막했다. ‘순서야 찾아보면 되고…그런데 어설픈게 만들면 영 도움이 안될텐데.’ L씨는 꼼꼼히 고민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안내 포스터 부착

대중목욕탕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심장마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응급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대부분 응급조치 방법을 몰라 신고만 한 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비용 문제 때문에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가 비치된 곳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제안인은 지역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목욕탕에서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안내 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했고,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는 동해소방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동해시는 동해소방서와 협업하여 기 제작한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안내 포스터를 관내 대중목욕탕에 집중적으로 부착하였고, 소화전과 소화기 사용법도 동시에 배부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포스터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배부 또는 습기에 따른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

맞춤형 이동신문고 현장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듣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문고, 당당한 자립을 돕다

사소한 민원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고충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크게 울리게 되었다. 지난 8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서울북부하나센터에 열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이동신문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 적응에 애로사항이 많고,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약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곳을 찾기 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먼저 고충을 듣고자 찾아온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반갑고도 고마운 기회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은 기본적인 사회 적응 문제인 것이 대다수입니다. 건강보험급여 혜택 확대, 여권발급 지연 개선 등 기본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문의부터 자녀교육, 취업알선 상담까지 다양하지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스물 한 살의 청년의 경우,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여 대학에 갈 수 있을지를 문의해 왔는데요. 취업알선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한 가정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후 현장 조사·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금광연 사무관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지역 중심 이동신문고와 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 현장의 민원과 고충 해결에 나서는 이동신문고가 이번에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출동했다.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찾아 그들의 고충과 사연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이른 추석을 앞둔 8월, 민원상담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이들에게 훈훈한 선물이 되었다.

- 1 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진행하고 있다
- 2 안산시에는 외국인노동자 전국 최대 지역으로 6만 8천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 3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민원상담 및 접수를 안내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2



3



4 5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8개국 출신의 통역관을 배치했다

6 외국인노동자 고충민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 조사관과 상담반을 배치했다

리 특별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 공통된 민원을 상담 처리하기 때문에 간단히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4 시간 동안 무려 2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억울한 일에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직접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4년

전국을 순회하며 해당 지역민의 소리에 집중해온 이동신문고는 2011년부터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신문고가 지역의 다양성에만 집중해왔다면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화·세분화된 고충처리반의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취약계층, 시각장애인, 일용직근로자, 전통시장 종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타깃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사관을 구성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찾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박문수 이동신문고 팀장은 타깃에 따른 고충의 유형을 미리 예측하여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이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이어져 하노이, 방콕, 마닐라 등 재외국민

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소통 창구로도 활약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3회(맞춤형 43회, 해외형 10회) 진행되었고, 올해 역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군장병, 소상공인 등 20여 건의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더 낮게 몸을 낮추고, 더 다양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그 부지런한 발걸음이 8월 31일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로 이어졌다.

외국인노동자의 부당한 처우, 함께 고민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삭혀온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고충을 속 시원히 듣기 위해 약 6만 8천여 명, 전국 최고의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마련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여가시간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안산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어색하게 들어서는 이들이 많았지만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되자 금세 10여 명의 대기 인원이 찰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노동과 출입국 분야의 전문 조사관을 각 두 명씩 집중 배치했고, 일반 민원처리를 위해 복지, 행정, 생활법률 전문 상담반이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과의 소

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 통역관을 배치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허뿔으로써 이동신문고의 문턱을 더 낮게 낮춘 것이지요.” 박문수 팀장은 대상의 특징에 맞게 상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타국살이의 어려움은 물론 고용의 불안정과 부당함에도 쉽게 노출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들. 그 열악한 환경을 대변하듯 총 31건의 상담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수령, 부당대우 등 근로 환경에 관한 문의였고, 체류기간 연장,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국적취득,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등의 상담도 접수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취약계층, 시각장애인, 일용직근로자, 전통시장 종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타깃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사관을 구성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찾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말이 익숙지 않아 억울함을 제대로 하소연할 기회도 없었던 외국인노동자들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 기본 인적사항과 민원 내용을 정리한 '민원상담 처리전'을 작성한 다음 전문 조사관과의 심층 상담을 이어갔다. 퇴직금 산정에 의문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이동신문고를 찾은 스리랑카 노동자, 임금체불에 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베트남 노동자,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 처리가 궁급한 중국인 노동자, 퇴직금 수령 절차를 문의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등 일터에서 해결한지 못한 가지각색 사연들이 다양한 언어로 쏟아져 나왔다. 어색한 억양, 서투른 한국말로 연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노동자들. 이들이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앞으로 그 문을 더 다양하게 열어줄 것을 약속했다.



TIP. 2014년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3월	27일	인천 주거취약계층 대상
5월	26일	벤처기업인 대상
6월	27일	동두천 국가유공 및 보호대상자 대상
7월	6일	김포 다문화가족 대상
	23일	수도권 외국인노동자 대상
8월	1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지구 고충민원 대상
	23일	서울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대상
	31일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노동자 대상
9월	25일	서울 주거취약계층 대상
		여수 의무경찰 대상
10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의무경찰 대상
	26일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노동자 대상
	예정	경기도 안산 행복주택지구 고충민원 대상
		수도권 다문화가정 대상
		수도권 시각장애인 대상(~11월)
		부산 도로민원 다발현장(~11월)
		전북 철도민원 다발현장(~11월)
		시각장애인 대상(~11월)
11월	예정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수도권 다문화가정 대상
12월	예정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재외국민 대상



인도네시아 공무원 반부패 초청연수

청렴한 국가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잡다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권익위를 찾았다. 2006년 체결한 한-인니 반부패 업무협약에 따라 꾸준히 반부패 정보를 공유해 온 활동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이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제8차 한-인니 반부패 협의회와 함께 청렴도측정에 대한 연수를 받고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인 수원시청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위와 KPK의 여덟번째 교류의 장

“아빠 까바르!” “안녕하세요!” 서투른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수원 시청 직원들의 환대에 인도네시아 공무원들도 미소와 함께 한국말로 화답한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직원들이 수원시청을 방문한 것은 이들의 청렴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 한-인니 반부패 업무협약에 따라 8월 18일부터 5일간 실시된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의 마지막 코스다.

권익위와 인도네시아의 교류는 2006년 한-인니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동안 약 20명의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권익위를 방문해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수를 받으며 역량을 키웠다. 여덟 번째인 올해에는 로니 드위 수산토(Roni Dwi Susanto) KPK 연구개발과장을 비롯해 KPK 연구원과 전문가 등 총 5명이 방문했다.

수원시청의 청렴 노력을 배우다

8월 21일 KPK 직원들은 수원시 홍보관을 관람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시정철학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4년 전만 해도 수원시는 청렴도 꼴찌였습니다. 4년 간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시책을 실시

한 결과 지난 2013년 청렴도 6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염 시장과 KPK 직원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KPK 로니 드위 수산토 연구개발과장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수원시의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반둥시도 수원시를 모델로 청렴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수원시 김교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KPK 직원들은 시장실의 기록서관제와 시민감사관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청렴부서 담당관들도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며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청렴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하나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인연, 두 나라의 청렴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 청렴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 1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이 수원시청을 견학했다
- 2 KPK 직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면담해 수원시의 청렴도 상승 비결을 들었다
- 3 수원시청 홍보관을 둘러보는 KPK 직원들



Mini Interview

로니 드위 수산토(Roni Dwi Susanto)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연구개발과장

● 수원시청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수원시의 청렴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엄격한 처벌, 부패방지를 위한 규정과 제도 마련, 내부 직원들의 의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권익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향후 반둥시에 수원시와 반부패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수원시를 모델로 해서 반둥시의 청렴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이번 연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권익위가 주관한 청렴도측정에 관한 연수과정은 매우 유익했고, 우리의 교육수요에 맞게 구성되어 만족스러웠다. 한국의 발전된 청렴도 측정 모델을 참고해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하려 한다. 한국처럼 청렴도측정 설문조사 시 대면조사 외에 전화,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볼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반부패기구가 부패사건 조사와 기소 분야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부패예방 분야 정책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반부패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데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완제품 납품만 할 때는 ‘제조업’ 아닌 ‘도·소매업’ 적용



Case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등록증의 주종 목을 ‘철강재 도·소매업’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 사업장이 조선기자재를 직접 제 조했다고 판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업’에서 산재보험 요율이 더 높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무실만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점,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없다는 점, A씨는 물론 직원도 물품제조·생산과 정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 근로복 지공단의 결정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산 정하는 사업종류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2 반환 받을 권리 3년간 행사 않으면 시효로 소멸



Case
건설업을 하고 있는 (주)T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통보를 받 고 깜짝 놀랐다. 3년 전 받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고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반환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 (주)T 사의 대표 T씨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사무를 처리했고, 지원금 반환기간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지방노동관서가 지원금을 반환받을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 다. (주)T사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3 개인과외교습자의 비합리적 제재처분 완화 필요



Case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B씨는 일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학원이 아닌 개인과외이다보니 아이들의 사정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장소가 자주 바뀌는 편이었다. 거기에 부모들이 원하는 데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 수업도 하나씩 하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으로부터 1년간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왔다. 교습과목, 장소가 신고한 것과 다 르다는 이유에서였다.

Solution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점과 각 시·도 교육 청이 제각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권익위는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에 권고했다. 그밖에도 의료기기 영업소 이전신고 간소화, 동물병원 양수·양도 신고절차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규제에 대한 비 합리적 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4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명확하게 안내해야



Case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속이 상한 C씨. 다행히 분실보험을 가입해놓 은 상태여서 그나마 위로로 삼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정작 화나는 일은 보험적용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보상가격보다 가격이 훨 씬 저렴한 스마트폰을 선택했는데, 추가 자기부담금을 내라는 것이 었다. 화가 난 C씨는 바로 민원을 제기했다.

Solution
권익위는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자의 민원 중에서 가입자가 자기부 담금을 명확히 알지 못해, 분실 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파악했다. 권익 위는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단말기 채고나 부품수급 등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어르신의 작은 바람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하루 평균 8,60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와 이어지는 바쁜 와중에도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이 담긴 사연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하소연 좀 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어서 전화 한 번 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물었습니다. 민원인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픈 환자예요 혈압, 당뇨 등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3년 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사분들이 오셔서 안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민원인은 동사무소, 구청에 문의해보니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물어볼 데가 있어야지.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알아보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건강안마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두 번을 받을 수 있는데 적합 대상으로 선정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구청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작은 바람을 꼭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민원인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걱정돼서 다시 전화드렸어요. 담당자분과 통화는 해보셨어요?”

“그럼요! 덕분에 추석 지나고 마사지를 받게 됐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하더니, 내가 적합 대상자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정말 고마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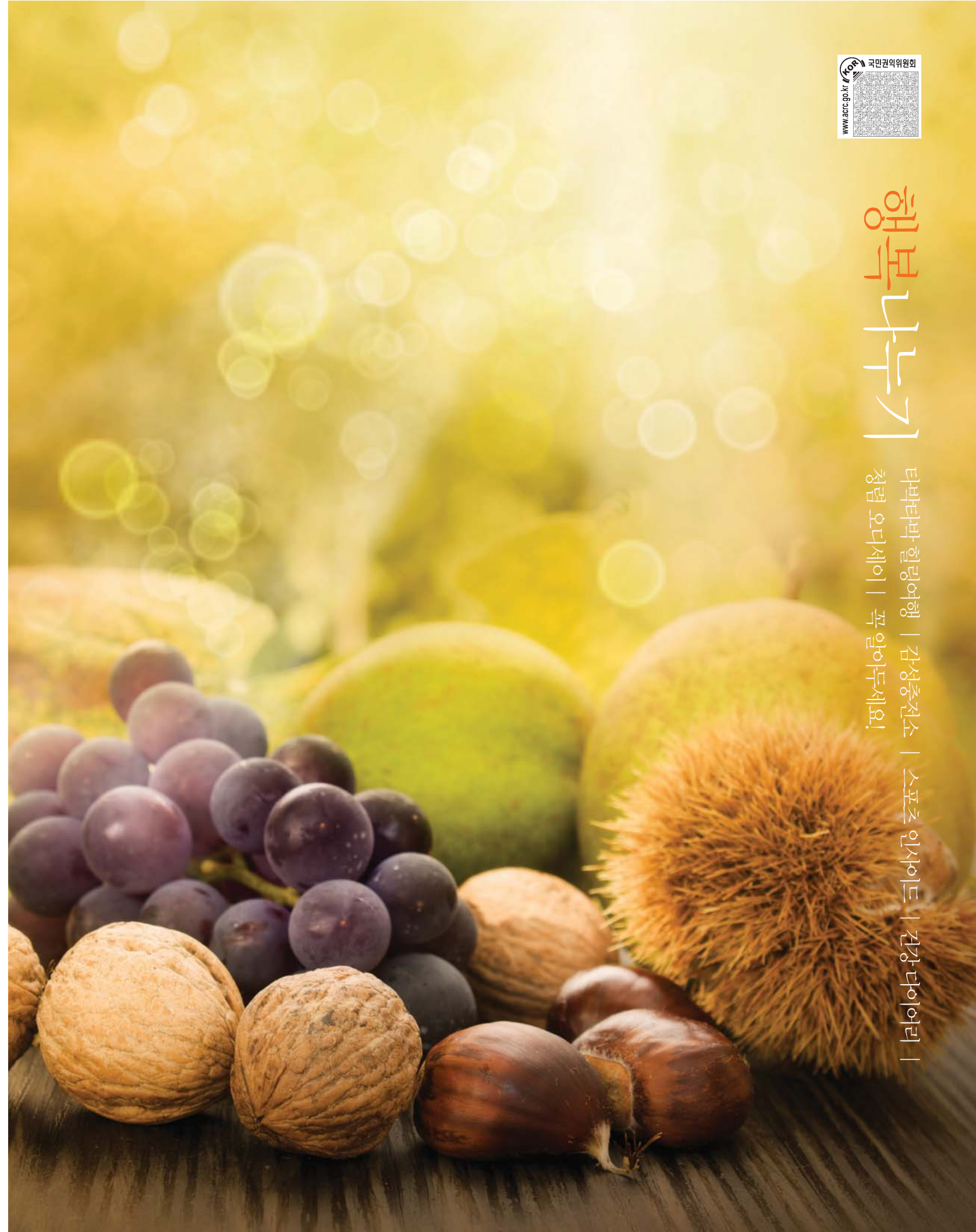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직접 마사지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뿌듯했습니다.

“일 처리가 잘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원인과 통화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번 상담처럼 제가 새로운 걸 배울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뿌듯해지는, 행복한 해피콜이었습니다.

행복 나누기

타바타파 힐링여행 | 감성충전소 | 스포츠 인사이트 | 건강 다이어리 |
청렴 오디세이 | 꼭 알아두세요!



김천 직지사 템플스테이

내 마음의 작은 쉼표를 찍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템플스테이, 여름 내내 뜨거운 열기로 지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식혀 줄 최고의 방법이다. 전국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도 직지사는 템플스테이 1호 사찰로 손꼽히는 매력적인 곳이다.

나를 비우고 자연을 담아가는 시간,
템플스테이

사각사각,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간질인다. 번다한 세상사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사찰 안은 고요하고 청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참선으로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는다. 고즈넉한 숲길을 산책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차 한 잔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한다.

템플스테이의 매력은 바로 이런 한적함이다. 느릿느릿 흘러가는 사찰의 시간을 따라가다보면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도심의 삶의 때가 차례차례 벗겨져 나가기 마련.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쉼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채워지며 단순한 사찰 안의 삶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차분히 밀어낸다. 치유와 휴식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인 셈이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그 첫 행사가 바로 이곳 직지사에서 열렸다.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내 템플스테이 공식 1호 사찰이 된 것. 시대가 변한 만큼 템플스테이도 많이 바뀌었다. 외국인들이 한국과 사찰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지금은 절에서 쉬어가고 싶은 내국인들이 훨씬 많이 찾는다. ‘힐링’을 찾는 현대인의 욕구에 걸맞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사하는 귀중한 힐링 여행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와 사명대사의 전설을 간직한 천년고찰 직지사

직지사의 이름에는 재미있는 설이 있다. 신라 눌지왕 2년 아도화상이 손가락으로 절터를 가리켜 절을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고려 때 능여대사가 절을 확장하면서 손으로 측량한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직지사는 사명대사가 출가득도(出家得度)한 사찰로 유명하다. 사명대사의 속세 고향은 경남 밀양이지만 스님으로서의 출발점이자 고향은 바로 이곳 김천 직지사다. 15세 때 부모를 잃은 그는 공부를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직지사 천왕문 앞의 바위 위에서 잠들었다. 그때 직지사 주지 신묵대사가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리다 깜박 잠들었는데, 꿈에서 천왕문 앞 바위에 황룡 한 마리가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란 신묵대사가 천왕문 앞을 보니 한 소년이 있었고, 황룡이 이 소년임을 직감한 신묵대사는 그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소년은 20세 되던 해 신묵대사의 뒤를 이어 직지사 주지가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다.

직지사의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도 했지만 영조 11년(1735)에 중건됐다. 사명대사의 재미있는 전설은 물론, 보물 제319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제606호인 삼층 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7점 등은 이곳을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 중에 하나이다.

변다한 일상을 잇는 특별한 체험

직지사 템플스테이의 기본은 다른 사찰과 똑같다. 수련자들은 절에서 스님의 시간대에 맞춰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오전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고, 명상을 마친 뒤 6시 경에 아침공양을 한다. 그리고 ‘운력’이라 부르는 경내 청소나 좌선, 산책 등 마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저녁에는 공양과 예불을 드리게 된다. 예불이 끝난 뒤에는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누고 이른 시간인 9시에 잠자리에 든다. 단순하지만 이른 산사의 하루를 고스란히 살아내는 것이다.

각 사찰마다 차별화하는 부분은 바로 낮 시간 중 프로그램 부분이다. 직지사는 국내 템플스테이 공식 1호 사찰만큼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유롭게 사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개인별 휴식형 프로그램 ‘내 마음의 작은 섬표’를 비롯해 참 나를 찾는 템플스테이인 ‘내 마음 바로보기’, 김천시와 연계한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인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불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야단법석 템플스테이’와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도 있다.

이중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가 특히 인기가 높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는 밤 시간대에 직지사가 위치한 경북 김천의 명소 곳곳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밤이 되면 한층 더 고요해지는 직지사를 시작으로 직지문화공원,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 과일밭을 돌아보는 코스다. 밤길을 걸으며 직지사의 전설을 듣고, 과일도 따 보고,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탐돌이를 하며 소원을 빈다. 직지사 계곡 곳곳에 있는 작은 실개울에 발을 담그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이곳 템플스테이의 매력. 영적암까지의 포행, 108배, 3배, 암자산책 등 다양한 수련과 함께 성불박물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다보면 직지사에서의 충만한 하루가 느리게 흘러간다.

고요와 멈춤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 속에 작은 섬표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템플스테이의 하루. 이 가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삶을 내려놓고 비움의 시간을 마음껏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직지사 템플스테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jikjisa.or.kr)에서 예약
직지사 템플스테이사무국 (054-429-1716) 전화예약

직지사 가는 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서울 - 직지사 :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인터체인지 ▶ 4번국도(김천방면) ▶ 903지방도 ▶ 직지사
부산 - 직지사 : 경부고속도로 김천인터체인지 ▶ 4번국도(영동방면) ▶ 903지방도 ▶ 직지사



인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역사의 길에 발을 내딛다

옛 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떠올리게도 하고 더는 만날 수 없는 그리운 풍경이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별다른 놀거리가 없어 해가 질 때까지 뛰놀고, 전자제품도 흔치 않아 TV 한 대, 냉장도 한 대 있으면 부자 소리 들었던 그 시절. 인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은 발을 딛는 순간 그리운 그때의 추억 속으로 인도한다.



굴곡 많은 인천 역사의 산실,

배다리마을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인천 동구는 1883년 제물포항의 개항과 더불어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개항 이후 몰려든 일본인들의 요구로 제물포 해안에 개항장이 조성되면서 조선인들은 배다리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 일대에는 성냥 공장, 간장 공장, 고무신 공장 등이 들어섰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다. 배다리 일대에는 근해의 해산물과 인근의 논밭에서 가꾼 농산물로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헌책방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터전이 되었다.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서서히 쇠락해 가던 배다리 마을이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은 2007년, 마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마을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저지로 산업도로는 배다리 마을을 피해 건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배다리 마을은 배다리역사문화마을로 탈바꿈했다.

강통 로봇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푸근한 공간, 스페이스 빔

192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옛 인천 양조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화 공간 스페이스 빔. 2m가 넘는 커다란 강통 로봇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전시공간인 1층과 사무실과 카페인 2층으로 나뉘어 있다. 아기자기한 카페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차를 마

실 수 있고 가격은 원하는 만큼 지불하면 된다. 현재 스페이스 빔은 철학스터디, 공간스터디, 배다리 전통주 만들기 교실 등도 진행해 체험 공간으로도 인기가 높다. 스페이스 빔에 들를 일이 있으면 그곳의 터줏대감인 세 마리 고양이도 찾아보자. 쫄랑이, 구석이,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움을 더해 준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이 시작되는

헌책방 골목

헌책방 골목의 입구에는 배다리 안내소가 자리잡고 있다. 1950년대 제사용품과 일용잡화를 팔던 조흥상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의 지도와 예술행사 안내책자 등을 비치해 놓고 관광객들을 맞는다. 한 부에 500원에 파는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의 지도를 손에 들고, 옛 건물의 정취를 보여주는 헌책방 골목을 먼저 살펴보자. 이곳의 터줏대감은 1953년 문을 연 집현전으로 80세가 훌쩍 넘은 부부가 쉼 없이 쌓인 세월을 안고 운영하는 곳이다. 헌책방 골목의 신참인 아벨서점은 1973년 문을 연 곳으로, 2007년에는 ‘시가 있는 작은 책길’이라는 전시관과 책방을 겸한 공간을 개관했다. 1954년 불탄 건물을 다시 꾸민 곳으로 1층은 예술 관련 서적, 2층은 다락방으로 꾸며져 있다. 헌책방 골목에 수줍게 자리잡고 있는 사진 공간 배다리도 꼭 가 봐야 할 명소. 2층은 특별 기획 전시가, 1층은 카페를

겸한 사진 갤러리가 운영된다. 차 한 잔이 간절한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보자. “누군가 맡겨 놓은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10잔씩 커피를 맡겨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시간이 멈춘 느릿한 마을,

벽화골목

스페이스 빔에서 도원역을 향해 걷다 보면 알록달록한 지하도가 보인다. 그곳이 바로 배다리 벽화마을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은 다른 벽화마을처럼 연속해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숨바꼭질하듯이 숨겨져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멈춘 듯 70~80년대 옛 주택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구석구석 감상할 수 있다. 담벼락 윗부분, 길가의 동그란 돌 위, 물탱크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벽화를 발견하는 재미 역시 쏠쏠하다.



인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가는 길

주소 인천시 동구 금곡동 11-9 배다리 안내소

가는 길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직진 5분 거리

카페 <http://cafe.naver.com/fullmoonh>





201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미리보기

유례없는 혼전 속 가을야구의 향방

숨가쁘게 달려온 2014 프로야구가 결승점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주 동안 휴식기를 가진 뒤,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페넌트레이스 잔여경기를 통해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린다. 4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이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정한 가운데, 2위 넥센과 3위 NC도 사실상 가을잔치 참가가 확정된 상황. 반면 중위권 그룹은 4위 LG부터 7위 롯데까지 4개 팀이 불과 3.5게임차로 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펼치는 중이다. 이에 마지막 4강 한 자리를 놓고 정규시즌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총력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를 뜨겁게 달굴 4강 싸움의 향방과 포스트시즌 전망을 미리 살펴봤다.

4강 티켓의 마지막 주인은?

5할 승률은 프로야구 상위팀과 하위팀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프로야구에 8개 구단 체제가 정착된 1991년 이후, 승률 5할 미만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예는 딱 4차례 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올 시즌 역대 다섯 번째 '승률 5할 미만 4강팀'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9월 15일 현재 4위 LG는 56승 2무 60패 승률 0.483으로 5월에 크게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01년 역대 최저승률 4강팀인 한화(승률 0.473) 이후 가장 저조한 팀 성적. 3위 NC와의 승차는 7게임차로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할 만큼 거리가 벌어진 반면, 7위 롯데와의 승차는 3.5게임차로 잔여시즌 경기에 따라 얼마든 뒤집힐 수 있는 사정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팀 평균자책 2위(4.58)의 막강한 마운드를 보유한 LG, 4강 경쟁팀 중 가장 많은 15경기를 남겨둔 두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반면 외국인 선수 1명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 SK, 외국인 타자 히메네스가 무용지물이 된 롯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 중 어느 팀이 포스트시즌에 올라가더라도 첫 관문인 준플레이오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승률 5할 미만으로 4강에 든 네 팀(91년 롯데, 98년 OB, 2001년 한화, 2009년 롯데) 중 준PO에서 승리한 팀은 한 팀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순위가 결정되어 여유가 있는 1-3위 팀과 달리,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전을 펼치며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도 불리한 점이다. 3위 NC는 큰 경기 경험부족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4위 그룹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3위 NC가 무난히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연속 통합우승 '삼성 왕조'는 가능할까

플레이오프는 2위 넥센과 3위 NC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팀간의 대결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규시즌 상대전적은 NC가 우세하지만 최근 맞대결만 놓고 보면 넥센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넥센은 팀홈런 1위의 강타선과 조상우-한현희를 앞세운 불펜이 강점인 반면, NC는 기동력과 장타력이 조화를 이룬 타선에 외국인 투수 3인방을 앞세운 선발진이 강점이다. 넥센이 뱅헤켄과 소사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선발요원이 없는 게 약점이라면, NC는 불펜에 확실히 믿고 내보낼 만한 투수가 없다는 게 고민거리다. 엇비슷한 전력에 대조적인 팀 컬러를 띠는 두 팀의 대결은 시리즈 초반, 특히 2차전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공산이 크다. 특히 포스트시

즌 무대가 처음인 NC의 경우 1차전 승패와는 별개로 2차전을 잡고 마산 홈구장으로 이동하는 편이 유리하다. 넥센 역시 삼성과의 한국시리즈를 가능한 100% 전력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시리즈 초반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1, 2차전 승부가 중요하다.

분명한 건 어느 팀이 승리해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더라도, 결국 최종 우승팀은 정규시즌 1위 삼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내 프로야구는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방식이 정규시즌 1위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위 이하 팀은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치며 투수력과 체력을 전부 소진한 상태로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약 2주 동안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1위팀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한국시리즈 우승은 전부 정규시즌 1위 팀이 차지했다. 삼성 역시 2011년 이후 세 시즌 동안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모두 거머쥔 바 있다. 구단과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수단 전체가 큰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게다가 올해의 삼성은 지난 3년간의 우승 전력을 뛰어넘어, 역대 프로야구에서도 단연 손에 꼽을 만큼 막강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팀 타율 3할대의 강력한 타선, 9개 팀 중 유일하게 5선발 시스템이 가능한 막강 선발진, 나바로-벤텐-헬크마틴 등 최강의 외국인 선수 진용, 이승엽-박한이 등 경험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의 존재까지. 1986-1989 해태 타이거즈를, 2007-2010 SK 와이번스를 뛰어넘는 '삼성 왕조'가 탄생을 앞두고 있다.

2014 프로야구 정규리그 순위 (9월말 현재)

순위	팀명	게임차
1	삼성	0.0
2	넥센	3.5
3	NC	11.0
4	LG	18.0
5	SK	19.5
6	두산	20.0
7	롯데	21.5
8	KIA	24.5
9	한화	26.0

생활 속 스트레칭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 스트레칭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지개 한 번 쪽 펴면 몸이 개운해진다. 일하다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인 스트레칭은 조용히 큰 힘을 발휘한다.

하루 3분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챙기자

스트레칭은 몸을 쪽 펴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수행하는 운동이다. 흔히 운동 시작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준비운동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뭉쳤던 근육이 길게 늘이고 조여 몸매 교정 효과도 준다. 인대에 탄력이 생기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신체 부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부상 방지와 체력단련, 피로해소의 목적인데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된다.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장시간 운전할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된다. 하루 3분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스트레칭의 나비효과

몸을 쪽쪽 늘리는 스트레칭의 효과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운동하기로 마음먹으면 준비운동은 건너뛰고 당장 달리고 싶어 안달이 난다. 열심히 달려서 땀 흘리는 게 낫지, 슬쩍슬쩍 움직이는 스트레칭은 감질난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굳지만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한시라도 빨리 일을 끝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에 어금니만 깨문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칭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 _ 오래 움직이지 않거나 한 자세로 머물면 근육이 굳는 게 느껴진다.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까지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굳는 것이다. 그러면 쉽게 피로해진다. 이때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진다. 몸 구석구석 혈액이 공급되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된다. 운동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미세하게 찢어진 근육은 빠르게 복구되고, 피로도 빨리 풀린다.

두 번째, 몸이 유연해진다 _ 지나치게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유연하면 원래 모습으로 잘 돌아오는 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근육이 너무 단단하면 조금만 무리해도 찢어지지만, 근육이 유연하면 덜 다친다.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아도 다치기 쉽다. 운동하기 전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하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통증이 사라진다 _ 오래 앉아있다가 허리를 한 번 쪽 펴면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스트레칭의 효과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되어 근육이 따뜻해지고, 단단하게 굳었던 근육이 펴져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허벅지 뒷근육이 단단해지면 등 근육에 무리를 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네 번째, 자세가 교정된다 _ 인체는 무거운 머리를 가느다란 목과 높이 쌓인 척추로 지탱하는 구조이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구부정해지기 쉽다. 허리 통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자주 스트레칭을 하면 자세가 교정되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칭은 상처만 남긴다

무슨 일이든 과하면 넘치는 법. 스트레칭도 과하면 오히려 상처를 입힌다. 관절과 근육은 갑자기 자극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시작한다. 가볍게 뛰어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서서히 하는 게 좋다. 이때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순간에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면 더 잘 이완된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움직이되 반동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반동을 주면 근육이 심하게 경직될 수 있다. 인대를 손상시킬 위험이 높아지므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반동은 피한다. 운동할 때 타인과 비교하면 무리하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다치게 되므로 주의하자. 단,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자극을 유지하는 게 좋다. 스트레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는 운동이 아니므로 매일,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게 좋다. ‘아침 운동이 좋다’ ‘공복이 좋다’ 등 운동에 관한 속설이 다양하지만, 혈액 순환 촉진,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는 운동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쉬운 동작으로 시작하고 운동 능력 향상 수준에 맞춰 시간이나 동작을 늘린다. 우선 몸의 부위별로 고르게 스트레칭한 후 필요한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하면 몸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후유증은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칭 후 며칠을 고생했다면 이는 운동 범위를 넘어서 무리했던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스트레칭

아침 시간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잠에서 깬 직후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누구보다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잠자리 스트레칭은 뇌의 활동을 30분 앞당긴다.

잠자리 스트레칭 1

자리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접어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싼다.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가까이 지그시 당기고 20초 유지한다. 양쪽 모두 2번 반복한다. 이때 다리를 함빔 들어 올리되 반대쪽 다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잠자리 스트레칭 2

누운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눕는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넘긴다.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손으로 누르고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본다. 2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반대쪽도 한다. 2회씩 반복한다.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낮은 데로 임하는 청빈한 목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비유럽권 교황이자 첫 중남미 출신의 교황인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이면서도 소외받거나 빈곤한 사람들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특권을 과감히 떨친 소탈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거기에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교황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서는 검소한 교황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형제애로 땀어린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인사다. 그가 택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평생을 가난한 이를 위해 헌신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가져온 것. 세상의 소외된 자와 그들에 있는 자들을 위해 빛을 밝히려는 의지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 교황이자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미주 출신, 첫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 만 21세 되던 해 예수회에 입회한 그는 아르헨티나 대교구장과 산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당의 추기경을 역임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 대교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조직을 재편했으며,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대교구 지분들을 매각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으며, 추기경 시절에는 관저를 사양하고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구의 빈민들을 보살폈다. 또 직접 요리를 만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검소한 생활 방식을 지키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그는 이따금 몰래 밤거리로 나가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거리에 앉아 음식을 즐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3년 12월 17일 아침 교황 즉위 후 맞은 첫 생일 아침상에는 동유럽 출신 노숙인 세 명이 초청돼 생일상을 함께 나눌 정도였다.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국산 차, 가능한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뜻을 사전에 전달했으며, 의전차량으로 선택된 경차 '쏘울'은 방한기간 내내 교황의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바티칸의 청렴을 위해 솔선수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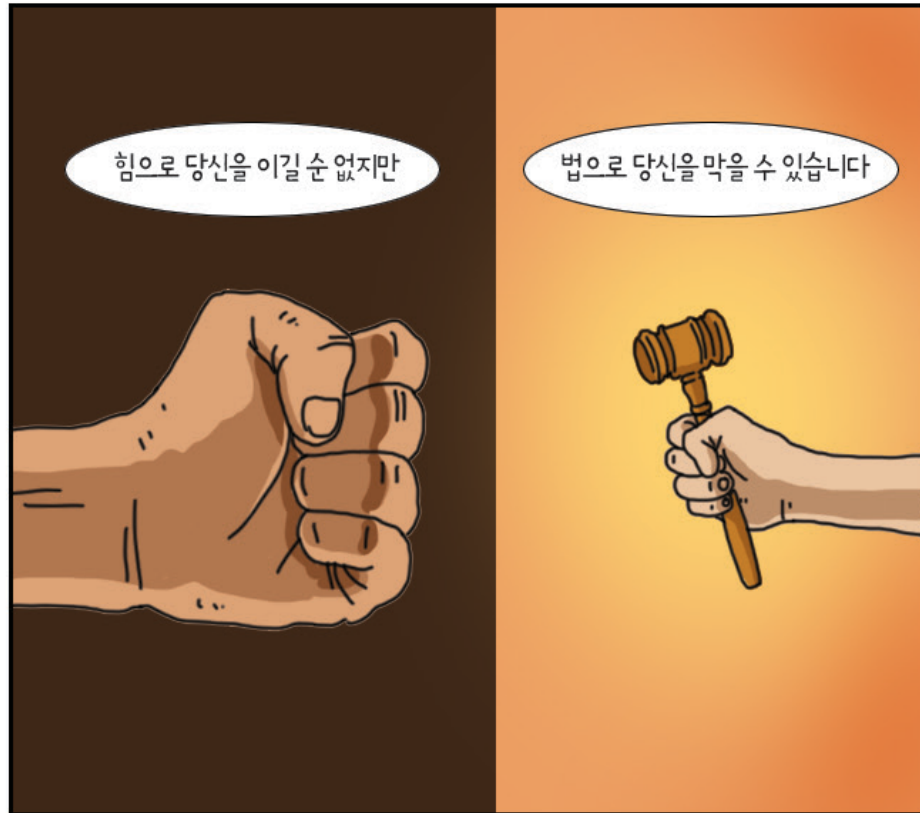
그의 검소한 생활방식은 교황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교황 선출 직후 첫 강복을 위해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타났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에 걸린 십자가는 새 교황을 위해 만든 금 십자가가 아닌 주교 시절부터 쓰던 철제 십자가였다. 교황은 교황의 옥새로 불리는 '어부의 반지'도 새로 만들지 않고 옛날 주조틀을 재활용해 만든 도금 은반지를 선택했다. 또 교황궁 대신 게스트하우스인 '성녀 마르타의 집'을 거처로 삼으며 110년 바티칸 관행을 깨고 추기경 시절의 검소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의 솔선수범하는 검소한 삶의 자세는 교황청과 가톨릭 교계에 영향력을 미쳤다. 교황청이 각종 비용을 줄여나간 것은 물론, 대형 차량을 줄이고 주교들의 십자기도 황금에서 다른 금속 재질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투명한 행정도 과감히 바뀌나갔다. 우선 가톨릭 사제들의 어린이 성추행 추문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아동성추행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성직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예비성직자 심사를 강화한 것. 또 취임 한 달 만에 추기경 자문단을 구성해 교황청의 조직 구성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간 것은 물론, 돈 세탁과 비리 논란을 빚은 바티칸은행 개혁에 나섰다. 세계적인 회계 법인에 바티칸은행에 대한 회계 감독을 위탁하고, 2014년 7월 신임 은행장으로 프랑스 출신 장 바티스트 드 프랑쉬를 임명하는 등 파격 행보로도 시선을 모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마피아 파문 선언으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마피아의 한 분파인 '은드란게타'의 본거지 칼라브리아에서 미사를 갖고 "마피아처럼 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신과 교감하지 않는다. 마피아 단원들은 파문됐다"며 단호한 면모를 보였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성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카톨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몸소 실천하는 검소하고 청렴한 삶은 세계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아동이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학대,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특례법 필요성 대두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칠곡 계모 학대 사건’, ‘부산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굵직굵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실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10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0~17세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총 6,796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 6,403건에 비해 6.1%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2

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는 친부모가 76.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중박학대가 43.0%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중박학대란 ‘신체학대 또는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를 의미한다. 이어서 방임이 26.2%, 정서학대가 16.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고, 지난 9월 본격 시행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엄연한 범죄로 간주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 「아동학대 특

례법」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친권 상실 판정까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례법 본격 시행, 처벌수위와 보호방법 강화

「아동학대 특례법」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여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종전에는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돌보미가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됐다.

또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아동 학대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이 외에도 관련부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피해아동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시행에 발맞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도 서울가정법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중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검찰로부터 송치받아 처리하게 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피해아동 접근금지 처분, 친권 제한·정지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위탁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시행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만큼 앞으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News & People

2014. 9+10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권익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지난 9월 26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법률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심각해진 후라고 해도 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성보 위원장, 구세군 서울 후생원 방문



지난 9월 4일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세군 서울 후생원을 방문했다. 구세군 서울 후생원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로, 1918년에

설립되어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이날 서울 후생원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박희범 서울후생원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국민권익〉, 국제비즈니스 대상 수상

권익위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제11회 스티비 어워즈(Stevie Awards)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에서 두개 부문 상을 수상했다. ‘스티비 어워즈 국제비즈니스 대상’은 전 세계 기업 및 정부조직의 경영 업적, 홍보 활동, 사회 기여도 등 15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이다. 올해는 60여 개국에서 3,500여 작품이 출품되어 경쟁한 가운데 〈국민권익〉은 사보(일반인대상) 부문 은상, 기타출판물(정부) 부문 동상 등 두개 부문 상을 수상했다.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고액·빈발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교황청 지정 순례성지 ‘구산성지’ 보존 중재



권익위는 지난 8월 12일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되며 민원이 발생한 구산성지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구산성지는 1980년 교황청이 지정한 순례성지로, 이번 조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양터를 존치면적에 포함하고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천주교 수원교구는 순교자 묘를 이전하고, 하남시장은 향토유적 지정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 충북지역 순회 구술청취 실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충북지역에서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했다.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까지 직접 구술하러 나 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지난 여름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또 19일에는 대전·충남·충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도 열렸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 단어의 **굵게** 표시된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ㄷ ㅍ ㅂ ㅎ

Hint

22P 소제목 'ㄷ ㅌ'

34P 제목 'ㅌ ㅍ'

36P 두번째 중간제목 'ㅂ ㄷ'

46P 제목 'ㅂ ㅎ'

Review

이희정 (서울시 강남구)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큰 언니가 농촌으로 시집갔는데, 아이 교육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했거든요. 위킴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 농어촌으로 확대되었으면 해요.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농어촌에서의 다양한 체험여행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고, 어른들이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가족체험 휴가지로 더없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관광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기사를 읽으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권익위를 응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해 주십시오.	조경형 (광주시 북구)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노력이 청렴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영 (서울시 노원구) 저는 전투화를 신는 직업, 즉 군인입니다. 근 20년째 무좀을 달고 사는데, 아무리 잘 관리해도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발 건강관리 기사에 나온대로 잘 실천해서 꼭 무좀을 없애겠습니다. 충성!
---	---	---	---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10월 29일(수)입니다.

지난호 정답

옴부즈만 (옴부즈만, 부정수금, 퀴즈, 만든다)

지난호 당첨자

이희정 (서울시 강남구),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조경형 (광주시 북구), 박서영 (서울시 노원구)

193개국 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

대한민국이 정보통신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일시 | 2014.10.20 ~ 11.7

장소 | 부산 벡스코 (BEXCO) 일대

2014년 10월, 세계 정보통신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ICT 올림픽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ICT 엑스포, 글로벌 ICT컨퍼런스, 스마트 한류 문화행사 등의 다채로운 ICT 행사가 펼쳐집니다.